'오겜' 황동혁 "부담감은 평생 친구…시즌2 생각에 이 흔들"

에미 시상식 6관왕 기념 기자간담회
황동혁 감독 등 배우·스태프 참석해

"'오징어 게임' 시즌2 대본 작업을 하고 촬영하고 그걸 또 세상에 내놓는 그 과정만 생각해도 이가 흔들리고 삭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에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앞으로 계획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황 감독은 "현재 시즌2 각본을 쓰고 있다"며 "내년에 촬영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라서 시즌2는 2024년에 나올 것 같다"고 했다. 황 감독은 에미 수상 후 부담감에 대해서는 "부담은 평생 친구처럼 같이 가는 것이다. 때론 부담이 큰 동력이 된다"며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다음엔 작품상을 받고 싶다'고 말한 것도 스스로 부담을 느끼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16일 '오징어 게임'의 미국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Primetime Emmy Awards) 6관왕을 축하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감독상을 받은 황 감독을 비롯해 제작사인 싸이런 픽쳐스 김지연 대표, 여우단역상을 받은 배우 이유미, 미술상을 받은 채경선 미술감독, 특수효과상을 받은 정재훈 VFX 슈퍼바이저, 스턴트퍼포먼스 상을 받은 베스트스턴트팀의 심상민·이태영 무술팀장, 김차이 무술팀원이 참석했다.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이정재는 연출작인 '헌트'로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참석하게 돼 함께하지 못했다.

황 감독은 "내일이면 '오징어 게임'이 세상에 나온지 딱 1년 되는 날"이라며 "이 순간에 배우·스태프와 함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영광"이라고 했다. 이어 "평생 기억에 남을 1년"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런 자리에 오게 되기까지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다.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1년이었다. 감사하다"고 했다.

◇"배우를 너무 많이 죽여서 고민"

이날 행사에선 황 감독을 향한 질문이 쏟아졌다. K-콘텐츠의 인기 요인과 미래에 관한 물음부터 시즌2에 관한 궁금증,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 달라진 생활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황 감독은 K-콘텐츠에 대해서는 "우린 원래 열심히 만들고 있었고 잘 만들고 있었다"며 "그런 노력이 미디어 환경 변화와 맞물려 꽃을 피운 것 같다"고 했다. 또 "한국 작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될 만큼 퀄리티가 매우 높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치열하고 다니나믹한 사회에서 산다. 그 안에서 생상된 콘텐츠는 현대 사회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 점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즌2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배우들을 죽여서 고민"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황 감독은 "사랑받던 배우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너무 쉽게 죽였다"며 "(캐릭터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이야기 나온 할리우드 배우 출연설에 관해서는 "외국 유명 배우는 나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황 감독이 영화 한 편을 찍은 뒤에 시즌2 작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황 감독은 이날 시즌2를 먼저 만들고나서 다른 작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시즌1과 시즌2 사이가 너무 벌어지면 이정재 등 출연 배우들이 확 늙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오징어 게임' 공개 후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가 많이 빠져서 좋아하는 마른 오징어를 먹기가 힘들었졌다"고 농담을 했다. 이어 "사람들이 알아봐서 조금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는 다시 현재 작업 중인 시즌2 각본 작업에 몰두해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 "시즌2 제작비나 제작 조건을 시즌1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 "K-콘텐츠 육성한다고 되는 거 아냐"

영화·드라마 관련 간담회 등에는 감독과 배우들만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는 에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스태프들이 직접 나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황 감독과 '오징어 게임' 뿐만 아니라 영화 '남한산성'(2017) 등을 함께한 김지연 대표는 K-콘텐츠는 육성하는 게 아니라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금 제도적으로 K-콘텐츠를 육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험으로 볼 때 'K-무언가'를 만들자면서 의도를 갖고 달려들면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작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경선 미술감독은 "내게 부여된 자율성이 창작에 큰 힘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채 미술감독은 "각본에 담긴 것을 비틀어서 보는 게 중요했다"며 "그렇게 할 수 있게 제작사와 스태프들이 믿어주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해줬다"고 했다. 이태영 무술팀장은 "한국 스턴트맨들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지지 않는 강인함을 갖고 있다. 어디서 일하든 피땀 흘려서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겠다. 저희도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정재훈 슈퍼바이저는 "VFX는 기술집약적이면서 노동집약적"이라며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으면 한다"고 했다. 배우 이유미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배우로서 다양한 길을 갈 수 있게 됐고,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상으로 등장한 이정재

토론토영화제에 참석하느라 간담회에 오지 못한 이정재는 영상으로 남우주연상 수상 소감 등을 전했다. 그는 "호명되는 순간이 매우 짧았지만, 내 이름이 불린 게 정말 맞는 것인지 3번 정도 생각했다"며 "얼떨떨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지인들의 축하 문자에 일일이 답장을 하다보니 이제야 실감이 난다"고 했다.

그는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건 한국 콘텐츠가 세계인과 만나서 사랑받게 됐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더 많은 창작자들이 세계인과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재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 영화·드라마를 어떻게 세계에 더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연기와 연출 모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것을 만들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블랙핑크 '본 핑크' 해외 투어·차트·평단 들썩

빌보드 "'셧다운', 친숙한 클래식·힙합 만남으로 리스 만족"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가 정규 2집 '본 핑크' 타이틀곡 '셧 다운(Shut Down)'으로 국내외 차트를 장악한 가운데 북미에 이어 유럽에서의 월드투어 공연을 확대한다.

17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월드 투어 '본 핑크'의 하나로 오는 12월20일 독일 베를린 공연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네 멤버는 12월19일에 이어 총 2회에 걸쳐 양일간 베를린 현지 팬들을 만난다.

YG는 "실제 유럽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선예매임에도 관객수가 빠르게 몰렸고 추가 공연 요청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애초 유럽 7개 도시에서 9회차 공연을 연다고 했는데 10회 공연을 진행하게 된 셈이다. 2019년 월드투어 당시 유럽 내 6개 도시 6회 공연을 소화했던 점을 떠올리면 대폭 늘었다.

이번 투어의 포문은 오는 10월 15~16일 올림픽공원 서울 케이스포 돔(체조경기장)에서 연다. 이후 곧장 북미로 향한다. 같은 달 25일 댈러스를 시작으로 29일 휴스턴, 11월 2일 애틀랜타, 6~7일 해밀턴, 10~11일 시카고, 14~15일 뉴어크 그리고 대망의 LA에서 공연한다.

이어 블랙핑크는 유럽으로 이동한다. 11월 30일~12월1일 영국 런던,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쾰른, 12월 11~12일 프랑스 파리, 15일 덴마크 코펜하겐, 19~20일 베를린, 2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의 공연을 통해 유럽 현지 팬들과 만난다. 최근 블랙핑크가 북미와 유럽에서 늘린 공연 회차는 4회차다. 이후 아시아, 오세아니아 각국으로 향해 총 1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블랙핑크가 전날 오후 1시(한국 시간) 발매한 '본 핑크'의 타이틀곡 '셧 다운(Shut Down)'은 총 43개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양대 팝 강국'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5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종석·임윤아 '빅마우스', 13.7%로 종영…자체 최고시청률

배우 이종석·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윤아 주연의 MBC TV 금토드라마 '빅마우스'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

후속작 육성재·정채연 주연 '금수저'

1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빅마우스'(크리에이터 장영철·정경순, 극본 김하람, 연출 오충환, 제작 에이스토리·스튜디오드래곤·에이맨프로젝트) 마지막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13.7%를 기록했다. 자체 최고다.

지난 7월29일 1회 시청률 6.2%로 출발한 '빅마우스'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처음보다 2배가 넘는 시청률로 종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특권층의 추악한 민낯을 파헤치려는 소시민 가족의 오랜 싸움 끝에 권력의 중심 '최도하'(김주헌 분)가 사망하면서 박창호가 승리를 거뒀다.

떠벌이 생계형 변호사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천재사기꾼 빅마우스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아낸 '빅마우스'는 휘몰아치는 속도감으로 인기를 누렸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의 한복판에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박창호, 고미호 부부의 서사에 이종석, 임윤아는 설득력을 부여했다. 후속작은 육성재·정채연 주연의 '금수저'다.

뉴시스

JTBC 예능 '히든싱어7' 규현, 2라운드 탈락…역대급 충격

동방신기 최강창민·슈퍼주니어 려욱·은혁 출연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이 모창 능력자들과 대결에서 초반 탈락이라는 시련을 딛고 최종라운드에서 1등을 했다.

16일 방송된 JTBC 예능 '히든싱어7'에서는 슈퍼주니어의 메인보컬이자 독보적인 감성 발라더 규현이 원조가수로 출격했다. 규현은 2라운드 탈락이라는 상상치 못한 결과를 맞닥뜨렸으나 최종 라운드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며 끝까지 눈 뗄 수 없는 볼거리를 선사했다.

먼저 규현은 슈퍼주니어의 대표곡 '쏘리쏘리(SORRY SORRY)'와 함께 등장해 스튜디오를 장악, 올라운더 보컬답게 다채로운 승부가 펼쳐질 것을 기대케 했다. 또한 규현을 응원하기 위해 동방신기 최강창민, 슈퍼주니어 려욱과 은혁, 샤이니 민호, 엑소 수호가 출연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 1라운드 미션곡으로 제시돼 본격적인 대결의 시작을 알렸다. 노래 제목에 따라 화려하지 않은 고백의 느낌을 살려서 불러보겠다던 규현은 1라운드에서 무려 30표를 받으며 탈락 위기를 겨우 모면,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절친 라인마저 의견이 갈리게 만든 모창 능력자들의 실력에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된 상황, 2라운드에는 3대 지명송 '광화문에서'가 미션곡에 이름을 올려 대결을 펼쳤다. 무대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속출하던 가운데 목소리는 물론 제스처와 비주얼까지 똑 닮은 모창 능력자들이 등장해 현장을 혼란 그 자체로 만들었다.

특히 진짜 규현으로 표가 몰린 3번 방에서 규현이 아닌 모창 능력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MC 전현무는 주저앉아버리기까지 하며 반전을 거듭하는 2라운드를 그려냈다. 규현마저 자신의 탈락을 예견해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던 도중 제작진과 긴급회의를 마치고 온 MC 전현무가 탈락자를 발표, 원조가수 규현이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려 역대급 충격을 몰고 왔다.

규현은 탈락했지만 원조가수는 탈락한 후에도 최종 라운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룰에 따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대결을 이어갔다.

슈퍼주니어 '유(U)'로 진행된 3라운드에서는 규현과 모창 능력자들이 댄스 브레이크까지 소화하는가 하면 은혁이 깜짝 랩 퍼포먼스를 선보여 흥을 끌어올렸다.

최종 라운드는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이라는 곡으로 장식됐다. 경쟁도 잊게 만드는 완벽한 하모니 끝에 '청원 경찰 규현' 이신이 규현이 받은 표를 제외하고 상금 2000만원과 우승을 거머쥐었다. 경쟁한 이세헌과는 단 1표 차였다.

최종집계에서 규현은 75표를 가져가며 압도적 1등을 차지해 기쁨을 만끽했다. 규현은 "모창 능력자분들께서 제 마음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며 자신을 끊임없이 연구한 모창 능력자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했다.

이날 규현을 비롯해 보는 이들의 혼까지 쏙 뽑은 모창 능력자들 사이 규현의 찐팬이 자리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뮤지컬 규현' 이세헌은 어린 시절 규현의 목소리에 푹 빠져 그와 같은 학교에 입학했다며 애정을 과시했다. 이에 규현은 "뮤지컬 규현이 아닌 뮤지컬 배우 이세헌으로서 대성하시길 응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수미·김용건·이계인 다시 뭉쳤다

다음달 10일 첫방송

배우 김용건, 김수미, 이계인이 유쾌하고 따스한 전원 라이프를 선보인다.

17일 tvN STORY 신규 예능 '회장님네 사람들' 제작진은 지난 13일 진행된 첫 촬영 현장 스틸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한껏 멋을 낸 선글라스로 아직도 젊게 사는 형제 같은 모습의 김용건과 이계인, 돈독한 친분이 느껴지는 김용건과 김수미의 모습이 포착됐다.

경기도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만난 이들은 시골의 정과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자연에서 위로를 받으며 제 2의 전원생활을 즐겼다.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꽃다운 나이에 만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마치 오래간만에 모인 가족처럼 유쾌한 분위기로 녹화를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각자 개성 넘치는 김용건, 김수미, 이계인이 고정 출연자로 출연하고, 이들과 친분이 있는 게스트들도 방문하며 재미를 더 할 예정이다.

첫 방송은 내달 10일 오후 8시20분.